지상백고좌

김제 금산사 조실 금산 도영 대종사

“너그럽게 참는 마음으로 정진 근본 삼아라”



도영 대종사는…1941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60년 김제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은 은사로 출가했다. 총무를 거쳐 주지를 맡아 보면서 금산사를 중창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역임하며 수행과 포교에 진력했다. 금산사와 완주 송광사 조실로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포교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를 취재한 적이 있다. 2022년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이런저런 자료들과 사진, 영상들을 오랫동안 살펴봤다. 또 템플스테이 역사와 함께 해 온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듣기도 했다.

당시 여러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도영 스님의 존재’였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템플스테이가 지금처럼 튼실하게 자리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도영 스님의 포교 원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대단했음을 대중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템플스테이 행사는 금세기 처음으로 열리는 지구인의 축제 월드컵대회를 맞아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사찰의 산문을 열고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여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체험케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입각하여 자연과의 철저한 조화를 이룬 곳.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한국 전통문화의 가장 깊은 체험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2002년 5월 11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주한 외교사절 초청 템플스테이 입재식에서 당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취지와 의미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역사’는 시작됐다. 그 후 600만명이 넘는 세계시민들이 사찰의 품에 안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아쉽게도 취재 당시에는 도영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원하고 원하면 이뤄진다고 했던가? 결국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소나무처럼 널리 전해지는 부처님법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가슴에 새기고 새기며 완주 송광사로 향했다. 송광사는 아늑하고 편안했다. 백두대간이 남서쪽으로 뻗어오다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춘 곳, 종남산(終南山) 끝자락 평지에 앉아 있다. 한 줄로 선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 종루, 대웅전 등을 차례차례 지났다. 남녀노소 누구나 평평한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다. 경내를 장엄한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와 사람이 어우러진 송광사는 그야말로 화엄세계다.

경내를 돌아보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을 만났다. 절 이름이 송광사인 이유가 궁금했다. 처음에는 백련사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독특한 향이 있어 다른 식물과 함께 어울려 생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금세 소나무 일색이 되고 말죠. 선종도 그와 같아 화엄종, 법상종, 정토종 등의 가르침이 토착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종이 전래 되고 나면 선종 일색이 됩니다. 이를 소나무가 널리 자리한다[松廣]는 선종의 비유어로 백련사를 송광사로 바꾼 것입니다. 신라 말의 일입니다.”

법진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경내의 풍경이 또 달라 보였다. 대웅전 부처님께 예를 올린 후 도영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약사전의 방문을 두드렸다.

홀로인 사람 없으니 어울리며 살아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의 길
“‘소 거꾸로 타고 법당 들어가는’ 愚를
범하지 않으려면 선입견을 내려놓아라”

도영 스님 주석하는 거처 ‘약사전’ 명명
“찾는 모든 사람 번뇌 · 병 사라졌으면”
매년 사자성어 선정해 대중과 실천 노력

팔순을 훌쩍 넘긴 스님이 자비로운 할아버지 미소를 얹어 직접 시원한 차를 내어 준다. 그 어떤 음료보다 달고 맛있었다. 스님이 먼저 운을 뗐다.

“금산사 주지를 하다가 포교원장을 맡게 되면서 2001년에 이곳 송광사에 짐을 풀게 됐습니다. 40년간 금산사에서 제 청춘을 보낸 뒤 수행처를 옮겼어요. 하하. 그때는 집도 몇 채 없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사격을 갖췄어요. 동네 속의 절, 공원같이 아름다운 절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쉬어 갈 수 있는 사찰이 됐으면 했는데, 이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훅 들어온 스님의 말씀에 잠시 당황했지만, 삼배를 올리고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에 내린 법어의 의미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은 금산사 봉축법요식에서 ‘외로운 빛이 모여 스스로 비추니 그대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네. 꽃지는 나무에는 그림자가 없으니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밝은 빛을) 보려 할 때 누군들 보지 못하겠는가? 봄이여, 보지 못함이여! 소(내 마음)를 거꾸로 타고 법당으로 들어가네(自照列孤明 為君通一線 花謝樹無影 看時誰不見 見不見 倒騎牛兮入佛殿)’라고 대중들에게 법어를 내렸다.

“아무도 홀로인 사람은 없습니다. ‘객체’는 있어도 ‘독자’는 없어요. 모든 것은 싫든 좋든 어울리고 섞임으로써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는 것만이 행복의 길입니다. ‘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것들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과 만날 때 경험적 선입견을 내려놓고 살기만 한다면 ‘소를 거꾸로 타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다운 당부의 말씀이었다. 계속 이어진 스님의 ‘약사전(藥師殿)’에 대한 설명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제가 사는 이 집 이름이 약사전입니다.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방에 오시는 분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우선 강조하는 것은 ‘지족상락(知足常樂) 능인자안(能忍自安)’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고 능히 참을 줄 알면 스스로가 편안해집니다. 만족하는 삶,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래 사는가 봅니다.”

스님은 매년 정월이 되면 사부대중에게 사자성어를 내린다.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라는 당부를 실어서 전하고 있다.

‘심외무법(心外無法),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수처작주(隨處作主),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야 한다. 존해파평(尊海波平), 바다도 존중받으면 파도가 잔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상대방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진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은 다 아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매년 하나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그 뜻을 같이 새겨봅니다. ‘나’보다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우리 삶이 금방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승려들의 과거시험, ‘승과(僧科)’

조선시대 승과는 어떻게 운영되었고,
승과의 입격자들은 누구였는가

조선의 승과(僧科) 연구
승과의 형식과 전개, 입격자에 대한 연구
정각 지음
432쪽 | 2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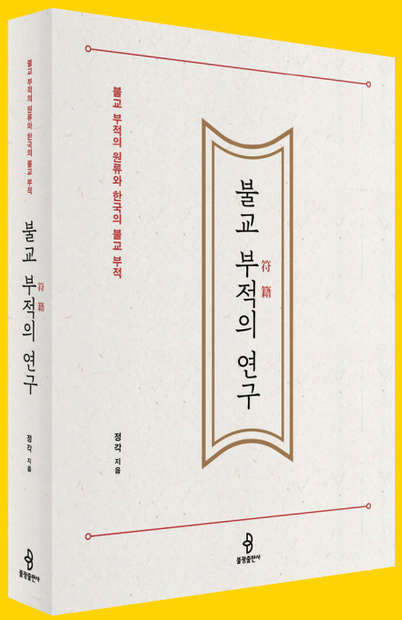
“이 책은 승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종단의 역사적
전통 가운데 하나를
되살린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_여천 무비 대종사

조선시대 승과의 전개와 양상,
그리고 조선불교 승과
입격자들의 목록까지
우리 역사 속 승과 전통에 관한
총체적 고찰!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부적은 정말 불교의 정법(正法)과 무관한 것인가?

왕생과 성불의 염원을 담은 불교 부적,
그 원류와 역사를 좇는 거대한 여정!



불교 부적의 원류와 한국의 불교 부적
불교 부적의 연구
정각 지음
496쪽 | 올컬러
35,000원

“우리 조상들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부적을 제대로 알고,
부적 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나간다면 한류의
흐름에 아름다운 꽃잎을
더하게 될 것이다.”
_남은 현봉 대종사

돈황 자료 및
대장경에 실린 불교 부적,
그리고 고려·조선에 통용된
우리 불교 전통 부적까지,
그 역사의 흔적을 발굴한
단 하나의 책!